두 개의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전도서 11:1~10)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개의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두 개의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정의하자면 '두 개의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할머니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할머니께서 만주에 계실 때에 교회를 다니시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목사님 사택이 있으면 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마당을 들락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한옥은 마당에서 바로 부엌으로 들어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이나 수석 장로님이 자기 집 부엌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댁 부엌에는 몰래 자주 들락거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댁 부엌에 들어가서 쌀독을 열어보고 쌀독이 비었으면 쌀을 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간 채우기의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날에는 구조조정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수십 수백 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동안에도 사주는 수십 수백억의 이익과 배당금을 챙겨서 자기 곳간을 채우기에 열중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곳간 채우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대학들이 학생과 언론 앞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교육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학재정을 충당하는데 사용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법원에 고소를 해서 등록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90만원씩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곳간 채우기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곳간이 가득 차야만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개의 곳간을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라고 하

였습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두 개의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곳간은 해 아래의 곳간과 해 위의 곳간입니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인생을 정의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거침없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데 '인생은 두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곳간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해 아래의 곳간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장소입니다. 나와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의 활성화는 전부 은혜이고 사랑이고 거저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 활동을 하실수록 많은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언제나 은총으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기 위한 선반과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십계명,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법 등과 같은 말로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하도록 자극합니다. 곳간을 나의 노력과 수고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과 수고로 채워도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도 공짜입니다. 물이나 공기 혹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많은 자원들조차 실은 하나님이 모두 공짜로 주신 것들 중에서 캐내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졸업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죽는 것도 공짜입니다. 공짜로 죽는다는 말이 어색합니다만 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공짜, 죽는 것도 공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 후에 해 아래의 곳간을 스스로의 주체성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간은 인간의 주체성으로는 채워지지 않기에 헛된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해 위의 곳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늘에 사람 명의로 곳간을 준비하셨습니다.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위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채워진 상태가 구원입니다. 내 명의의 곳간을 두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곳간을 내 마음으로 채웁니다. 해 위의 하늘 곳간이 마음으로 채워지면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곳간을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해 위의 하늘 곳간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은 땅에 남게 됩니다. 땅에 남게 된 마음은 또한 채워짐을 원해서 주체적으로 수고하게 되고 애쓰게 됩니다. 마음을 땅에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을 채우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곳간이 세 개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발동하는 동안에 해 아래의 곳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내지 못하고 해 위의 곳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표적인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멀쩡한 떡을 물에 던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식으로 먹는 떡은 밀이나 보리를 반죽하여 넓게 펴서 구운 것입니다. 이것을 물에 던지면 당연히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구제를 하면 되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심지어는 해상무역을 권장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관통하는 세계관인 '해 아래와 해 위'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누구나 첫 번째로 느끼는 필요이고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떡이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떡과 음료를 걱정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인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 곳간을 채우면 만사는 형통해집니다. 본래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 받은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곧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생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곳간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져야만 합니

다.
고진감래나 진인사대천명 같은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가치 체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은 은혜의 곳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떡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먹고 살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명의의 하늘 곳간만 채우면 마음공백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여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떡이라는 밧줄에 매여서 해 위의 곳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하늘로 떠나가질 못합니다. 하늘로 떠나가는 것은 땅에 있을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하늘로 마음을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 위의 곳간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져야 할 해 아래의 곳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 위의 곳간과 해 아래의 곳간이 텅텅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이고 악으로 보십니다.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붙잡은 떡을 버리고 하늘 곳간을 채우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입에 떡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은 내가 수고한 만큼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적 근성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이 해 위의 있는 하늘 곳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 곳간을 채우면 기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내 마음으로만 채워져야 할 나의 곳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땅 아래에 사는 우리가 그 곳간에 마음을 보내어 채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늘로 보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취직을 했습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낸 사람들은 직장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도 은혜입니다. 은혜위에 은혜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늘 곳간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해야만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월급은 수고에 대한 대가일 뿐이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수고의 결과로 대가를 얻었기에 마땅하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에는 피곤과 저주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돈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할 수 있

습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평등을 삼았기에 그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특징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긴 것 같은 자본주의는 가짜 감사라도 할 수 있기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해 아래에 있는 한 감사는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거짓된 감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떡 때문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발이 묶여 있지 말고 마음을 묶고 있는 떡을 냇물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떡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도 흔히 구제에 관한 훈계로 오해받습니다. 대체 무엇을 나눠 줘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구절은 마음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이나 여덟'은 사람이 하루 동안 관계 맺는 대략의 사람의 숫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 위의 곳간에 마음을 보내지 못한다면 인간관계를 통해 무엇이든지 얻으려 하는 마음의 성향을 갖습니다.
'나눠주라'는 말은 얻으려는 마음의 방향성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정상 형편상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해 위로 보내지 못하면 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얻어지는 어떤 가치로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은 생기지 않으며 또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의 방향을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주도록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9절에 엘리야가 가뭄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인간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할 때에 마음의 발이 묶여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봉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라신 것이 없으셨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주실 생각만을 하셨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을 하늘로 보내어 해 위의 곳간을 채우고 나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을 채우지 못함으로 해 아래의 삶을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 주체성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하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땅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장나는 것이고 재앙이 다가오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몰랐기에 이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재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아래에서 사람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먹고 마실 것에 마음이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명의로 된 곳간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발이 묶여서 마음을 올려 보내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곳간을 든든히 채운 상태로 살아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연금이나 은퇴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올라가서 하늘 곳간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만이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곳간을 가득 채운 든든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바라보고 마음이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내 마음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곳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걱정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